社 說

국도 43호선 교통난 해소되나

국도 43호선 의정부 - 포천 구간은 항상 만성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요 20개축 1천549㎞에 대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2축에 해당되는 국도 43호선 축석고개 - 영북면 자일리간 58㎞, 96개 지점에 대해 도비 45억5천만원과 시비 24억5천만원 등 총 70억원을 들여 빠르면 올 11월부터 도로구조 개선이나 확충, 신호체계개선,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사업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용역회사는 올 2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초 설계서를 포천시로 송부하고 11월에 착공해 2008년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빨리 진행된다면 국도 43호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할나위 없이 환영할 것이다.

포천지역 교통사고 건수는 2004년 기준으로 1천808건에 사망자수는 47명이지만 주요 사고지점은 국도 43호선과 47호선이다. 근본적인 포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철도노선이나 민자고속도로 개통 및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개설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적인 처방으로 만성적인 혼잡지역의 개선사업이나 교통운영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져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도 43호선을 비롯한 경기도내 20개축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한다.

국도 43호선 교통체증을 근복적으로 유발시키는 구간은 축석고개 부근과 하송우리 교차로, 대진대 부근이다. 이 구간에 대한 개선사업과 신호제어시스템 체계변경 등을 통해 체증원인을 제거한다. 현재 퇴근시간대 포천시청에서 경기2청사까지 55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업의 조기 추진과 완공을 위해서는 민원인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의 원만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같은 국도 43호선 혼잡구간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난이 일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포천지역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도로망 구축이 자동차 증가비율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포천지역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와 BRT노선 개설 및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교통난을 크게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남북축 고속도로 중심의 도로개설은 경기북부권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건설시기가 언제될지 모른다는 점에 있다.

또한 남북을 잇는 도로망 사업에 비해 동서축 도로망 개설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대형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역을 잇는 도로개설과 더불어 지방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량을 조절해야 한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변 정비사업과 신호체계개선 등이 함께 요구된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 훈 :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 집 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발 행 인 최호열 편 집 국 장 김영복 인 쇄 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포천시 건축사회 건축무료상담실 운영

민원실내 설치 무료설계 상담 서비스 제공

박윤국 포천시장은 8월22일 새로 조성된 민원실내 건축무료 상담실을 방문하여 포천시 건축사회지헌춘 회장 등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8월22일 새로 조성된 민원실내 건축무료 상담실을 방문하여 포천시 건축사회지헌춘 회장 등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천시 건축사회 주관으로 2002년부터 운영중인 건축 무료 상담실은 당초 건축과 사무실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22일부터 시청 민원실내 민원 상담실로 장소를 이동해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건축사들에게 수준 높은 건축무료상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과 포천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책자의 발간으로 인해 포천시 건축사회가 포천의 새로운 건축 문화를 선도할 것을 당부했으며 포천시 지역의 전통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특별기고 ■

대권 후보가 지녀야할 도량

이 중 희
통일교육위원 경기도협의회부회장

옛날 중국의 한(漢)나라에 작은 키에 긴칼을 차고 다니는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가 깡패들에게 붙잡혔는데, 그 두목이 이렇게 말했다. "야 이 겁쟁이 한신아! 너 같이 용기도 없는 놈이 웬 칼은 그토록 큰 것만 차고 다니느냐?"하며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정말 큰칼을 차고 다닐 만큼 용기가 있으면 그 칼로 내 배를 찔러봐라, 그럴 용기가 없으면 내 두 다리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거라"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소리를 해 왔다.

한신은 잠시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비장한 각오를 한 듯이 입술을 한 번 깨물고는 그 거만한 두목이 양다리를 벌리고 서있는 가랑이 밑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갔다.

"와! 한신은 정말 겁쟁이로구나" 깡패들은 손뼉을 치면서 한바탕 비웃었고, 깡패 두목은 더욱 의기 양양하여 쪼를 빼며"에헴! 이제는 한신도 별 수 없는 내 꼬봉이다"하면서 만족한 듯이 한껏 비아냥거렸다.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모두 한신을 비웃으면서 형편없는 졸장부로만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한신은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이면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결판을 냈을 것이지 그토록 창피하게 깡패 두목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워낙 큰 꿈을 가진 한신이었기에 사소한 일로 수모를 당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 한신이 뒷날 마침내 초나라의 왕이 되였다. 그리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깡패 두목을 찾았다. "아이쿠 이제 나는 죽었구나!"하고 왕에게 불려간 깡패 두목은 낙심하고 있었는데, 한신 왕은 뜻 밖에도 그에게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호위 대장이라는 벼슬을 주어 신하로 삼았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한신의 넓은 도량에 놀랐고 깡패 두목 역시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한 한신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그 후 어느 날 초나라가 한나라에게 망하여 한신이 황제 유방에게 사로 잡혔을 때 그 호위대장은 유방에게 활을 쏘아 한신을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옛날 깡패 두목이었던 호위대장은 목숨을 바쳐 한신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후보로 확정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잊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같은 당 후보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생결단식의 검증 공방과 음해를 주고 받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서로 협력해야 할 때이다. 한신의 도량을 배울 때이다.

한국지역신문협, 충남에서 하계수련대회 개최

중앙이사회, 납북자가족모임 후원 만장일치로 통과

전국 지역신문 200여개로 구성된 (사)한국지역신문협회(이하 한지협)는 충남 서천군 덕암스파에서 2007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된 한지협 하계수련대회에는 김중기 한지협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 협의회장과 회원사 가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하계수련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비롯 나소열 서천군수등 수많은 시도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중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년 '한지협' 역사속에서 오늘처럼 많은 회원사 가족들이 참석한 일은 없었다"면서 "이제야 전국의 지역신문들이 하나로 뭉쳐 진정한 화합과 단결을 보여주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역신문이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는 진정한 언론인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시 중앙이사회 에서는 정읍신문의 마라톤 대회 관련해 전국적인 지역신문들의 홍보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특히 경기도 협의회가 제안한 납북자 가족모임을 후원하는 안건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중앙회의를 통과하였다.

납북자 가족모임 은 전후 납북된 485명의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2004년에 국가인권위로부터 특별법 제정 권고를 이끌어낸 우리 분단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실체이기도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추락사고 조사결과 확인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 조종사와 정비사 격려

고조흥 국회의원(포천·연천/국방위원)은 8월29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공군 제 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최근 KF-16 추락 사고 조사결과 확인 및 사기가 저하된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고 의원은 비행단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부대 조종사와 정비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국 영공수호의 최선을 다하는 조종사 및 정비사들을 격려하였고 근무 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고 의원은 조종사들의 조기전역 문제에 관해서 조종사들의 여건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였으며 정비인원 부족으로 인한 정비 효율성 저하문제와 이에 따른 정비인력확충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장병들은 고 의원이 발의한 부사관 근속승진제도에 대해서도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준 것 같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군발전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부탁했다.

간담회 후 고 의원은 장병들의 근무현장을 찾았다. KF-16기가 위치한 OOO대대를 방문한 고 의원은 조종복으로 환복후 전투기가 활주로를 출발해 이륙직전까지의 과정인 HI-TAXI 체험을 했다.

체험을 마친 고 의원은 "지상에서의 짧은 비행이륙 과정만을 경험해보았지만 협소한 전투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조종사들의 심리적 육체적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조종사들의 애환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세부일정을 마친 고 의원은 부대를 떠나며 "우리영공의 수호자인 공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렇게 둘러보니 모두들 정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군과 공군 발전을 위해 군과 국회가 서로 힘써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파출소 경찰 신속대처 불법 게임장 적발

상품권 6천968매(시가 3천484만원 상당) 현금 166만원 압수

포천경찰서 관인파출소 소속 정민용경사와 박창재경장, 양서규 순경은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경 관인면 탄동리에서 불법게임장을 적발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농촌지역에서 비밀리에 영업하던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적발됐다.

포천경찰서 관인파출소(소장 이한주)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30분경 관인면 탄동리 소재 김모씨 소유 2층 건물 80여평에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50대를 설치하고 비밀리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업주와 종업원이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자신을 밝히지 않는 여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출입문은 철문으로 굳게 닫쳐있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법 오락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바다이야기 게임장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의 본체와 상품권 5천원 6천968매(시가 3천484만원 상당) 및 현금 166만원, 수백 명의 고객명단으로 추정되는 수첩 등을 압수했다.

현장 단속을 실시한 관인파출소 정민용 경사는 "도시지역에서 불법 오락산업 단속이 강화되자 영업장소를 농촌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동 당시 오락실 주변에 주차된 10대의 차량은 대부분 외지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